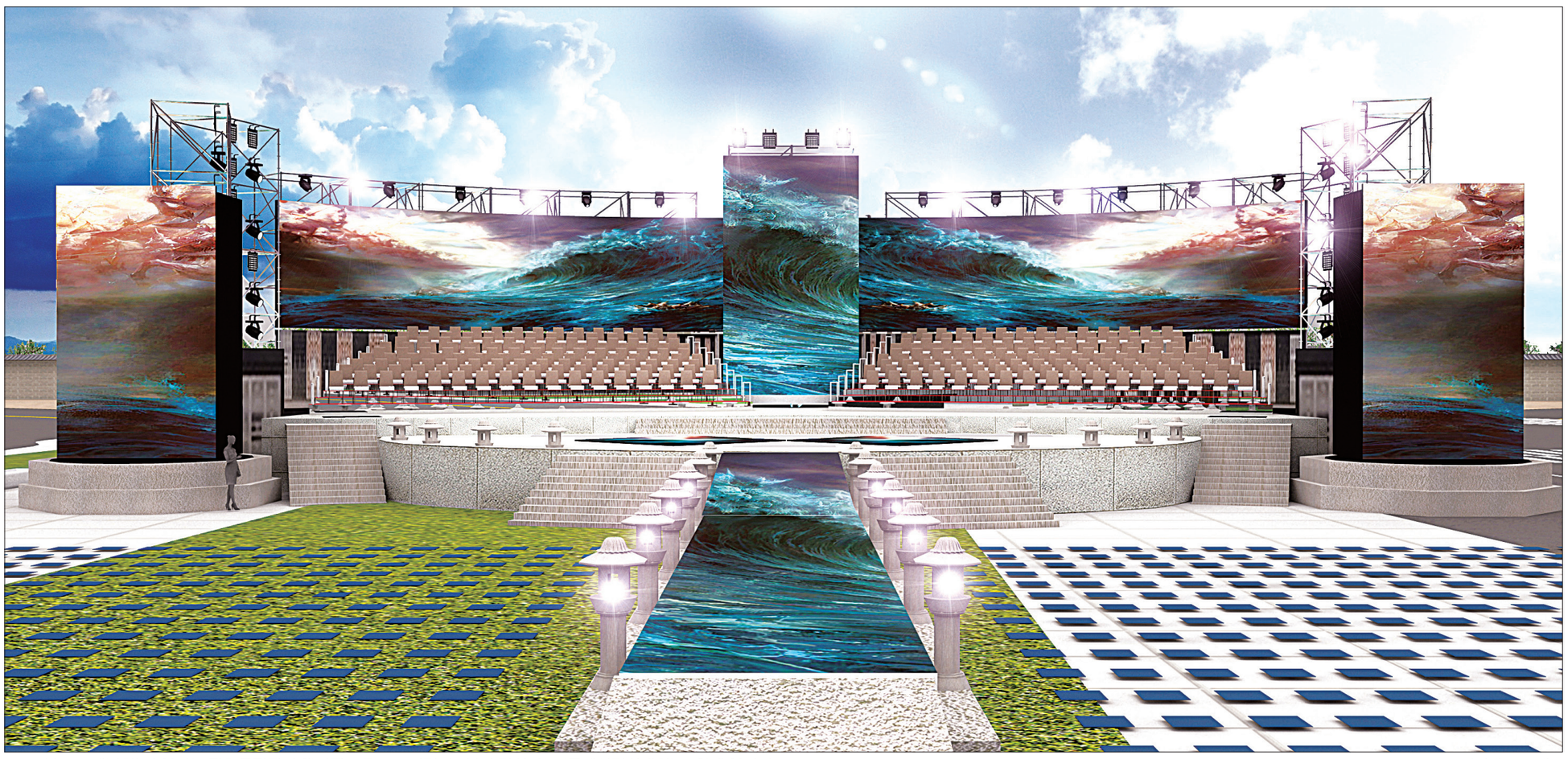
미리보는 불교도 대법회

초가을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선명상과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가 펼쳐진다. 9월 2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되는 '2024 불교도 대법회'가 개최되는 것. 전국에서 스님과 신도 3만 명이 동참하는 '2024 불교도 대법회'는 수계의식, 승보공양, 국제선명상대회, 음악회 등으로 구성됐다.

미래 정신문명의 시대, 국민들의 정신을 이끌 K-선명상 제시는 물론 전통불교의식 재현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사회규범과 가치를 국민들에게 제안하고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9월 28일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될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세히 살펴본다. 〈편집자 주〉



'2024불교도 대법회'가 열리는 광화문광장의 행사장 조감도. 3만명이 5분간 명상하는 '국제선명상대회'도 함께 열린다. 사진제공=조계종

SEON MEDITATION SUMMIT 2024

정신 건강 선도할 선명상, 광화문서 만난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공동체 규범 제시할 '수계법회'

한국불교 최고 지도자 스님들이 직접 법을 설하며 수계의식을 이끄는 장엄한 법석이 펼쳐진다. 9월 28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될 수계의식은 불자들이 지켜야 할 오계를 현대적 언어로 재해석, 수지하는 자리다. 생명존중과 상생의 근본 위에 욕망과 미움 등 감정의 절제를 서원하며 K-선명상을 통해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는 한국 불교 전통의 서원 의식이 선보여 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날 수계의식에서는 '모든 생명을 아끼고 존중하자' '남의 것을 탐하지 말고 나눔을 생활화 하자' 등 공동체 사회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범이 제시된다. 이번 수계의식은 전통 불교의식의 장엄한 연출효과를 통한 국민공감과 감동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마련됐다. 원로의장과 전계대화상을 증명으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수계법사로 나선다. 장궤합장과 큰절 등 전통의식으로 진행되며 수계법회의 여법함과 장엄함을 위해 무대 앞 중앙 600석은 좌식으로 준비됐다. 계층별(어린이, 청소년, 청장년), 부문별(신도회, 각급 기관 및 단체, 노동자)로 600여 명을 사전 선발한다.

'승보공양법회'로 공경 메시지 전달

불자들이 스님들께 올리는 공양 의식인 승보공양법회는 오후 3시부터 광화문 특설무대에서 진행된다. 승보공양 의식은 신뢰와 존경, 존중과 공경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두가 상생하는 사회 문화를 만들기 위해 조계종이 앞장서서 승보공양의 의미를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하고자 한 것.

공동체의 최소한의 규율인 오계의 덕목과 내 감정을 절제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공동체를 이루는 공경의식을 시연한다. 승보공양의 의미를 알리는 영상으로 시작되며 개식, 신도대표 인사말, 대종 오타, 정법계진언, 공양게, 운심게, 보공양진언, 보회향진언, 축원, 가사, 치사, 사홍서원으로 진행된다. 조계종은 승보공양에 동참하고자 하는 시민들을 위해 ARS도 개설했다. 060-700-7070으로 전화하면 한 통화에 1만 원을 후원할 수 있다.

'국제선명상대회' 5분 명상 공개

한국불교 1700년의 지혜를 담은 선명상과 세계적인 명상가들의 프로그램을 광화문 광장에서 만난다.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국제선명상대회는 오후 4시부터 시작된다. 국제선명상대회는 한국불교가 지켜온 정신적 가치와 전통의 의미를 국민과 함께 공감하고 마음의 평화, 세계평화, 국민 행복의 마중물이 될 선명상을 제시하는 시간으로 준비됐다.

9월 28일 광화문서 불교도법회
사부대중 3만명…5분 명상 선봬
108개 선명상법 제시로 마음평화
수계의식 · 승보공양 · 음악회도

여는공연에서는 진관사 비천무팀이 평온하고 청정한 마음을 회복하고 선한 에너지를 전하는 무대를 선보인다. 이어지는 '선명상의 정의, 지금 여기 바로 마음평안에 이르는 명상' '선명상의 설명과 종류' '한국 선명상의 전통은 간화선이다'를 주제로 한 영상은 대중들의 선명상에 대한 기대를 이끌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선명상 PT 발표로 본격적인 대회가 시작된다. 우선멈춤, 쉘패스명상, 방하착명상 등 현대인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조계종이 진우 스님의 진두지휘로 1년간 준비해 온 108가지 선명상 프로그램이 발표될 계획이다. 프로그램 개발과 지도자 양성, 명상센터 건립, 템플스테이 및 명상센터 연계 등 다양한 사업계획과 함께 선명사 안내서, 어플리케이션, 홈페이지 공개가 이어진다.

특히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선명상 선포가 눈길을 끈다. 진우 스님이 '5분 명상'을 선포함과 동시에 광화문광장은 3만여 불자들이 동참한 5분간 '순간의 고요함'이 연출될 전망이다. 선명상이 이어지는 5분간, 광화문 일대가 고요와 평안으로 물들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선명상 후에는 모든 대중이 함께하는 '세상을 위한 평화의 기도' 합송으로 국제선명상 대회는 마무리 된다. 조계종은 이후 전 국민이 하루 5분간 선명상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보급해나갈 예정이다. 무대위 명상지도자는 총 9명으로,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해 로시 조안 할리팩스, 툽텐진파, 차드 멩 탄, 팝루 스님, 직메 린포체 등 해외연사 5명, 금강 스님, 그리고 선원수좌회 스님 2명이 함께한다.

국제선명상대회는 평화 포퍼먼스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아로마 향이 나는 연꽃 모양 스티커를 가슴에 붙이며 '자기연민' 시간을 갖는 것도 특별한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감동 · 환희 가득 '음악회'

마음의 평화, 국민행복을 위한 선명상 선포 축하무대가 장엄하게 열린다. 오후 7시부터 진행되는 음악회는 내 안의 평화, 국민화합과 세계평화의 염원을 담은 감동과 환희, 행복의 무대로 꾸며진다. 가수 겸 배우 이승기의 사회로 스님들로 구성된 선명상 포교 프로젝트 그룹 비텐스, 상월비보이 '이에이트 크루', 가수 윤하와 최예림, 김태연, 뮤지컬 배우 최정원, 아이돌 B1A4 등이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조계종은 대형LED를 활용한 무대연출과 특수효과를 통해 감동과 환희의 무대를 선보이는 한편 K-선명상을 전세계에 알린다는 계획이다.



2024 불교도 대법회 성공기원

총본산 조계사,
세상과 함께하며 부처님법을 전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JOGYESA / 02.768.8500 / www.jogyesa.kr